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의 성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박 영 애

최 영 희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 인 전

김 향 은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고신대학교 가정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서울, 수원, 대전, 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아동 1060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아동의 성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수용이 남녀 아동 모두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의 여섯 가지 하위 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허용·방임은 남아의 경우에만 자아존중감 가운데 “행동품행”, “학업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세 가지 양육행동 요인 중 온정·수용이 남아와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아존중감의 변인은 남아의 경우에는 “학업능력”, 여아의 경우에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성 요소들 중에서 자아존중감 만큼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역량이나 유능함,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과 평가를 의미하는(Santrock, 1994;)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 행동, 적응 등 인생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격적 성숙의 지표로 강조되어 왔으며(김영희, 1998; Vernard,

본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동연구과제 중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임.

교신저자: 김향은, E-mail: hekim@sdg.kosin.ac.kr

1993), 개인이 전생을 통해 이룩해야 할 주된 발달과업으로 인식되어 왔다(이재연, 1993).

이처럼 중요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발달된다(Rosenberg, 1979). 즉,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인정, 존중, 평가는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데(김형호, 1997), 최초의 정보원인 가족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는 그 진위에 상관없이 하나의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각 개인의 정신적 자화상으로 각인되기에 이른다(노중희, 1997).

특별히 부모는 최초의 환경으로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자녀의 자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Duvall(1977)은 자녀를 수용하고 자녀가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현대 가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녀를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이 오늘날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아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의 형성과 발달에 부모가 이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신념을 토대로,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계 깊은 경험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모아져 왔다(조규성, 2000).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널리 연구되어 왔다(도현심과 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대체로 어머니의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지지적인 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

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문혜와 강문희, 1999; 도현심과 최미경, 1998; 박영애, 1995; 최보가와 손낙주, 1998; Eaton, 1997; Fletcher, Darling, Steinberg, & Dornbusch, 1995).

그러나 거부나 제재를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불일치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의 거부, 제재, 통제 및 권위적인 양육행동 등은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박영애, 1995; 오순환, 1991; Dubois, Eitel, & Felner, 1994; Glasgow, Dornbusch, Troyer, Steinberg, Ritter, 1997)가 있는 반면,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거의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Young, 1993)도 있고,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보고(Anderson & Hughes, 1989)도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연구한 Halpin, Halpin과 Whiddon(1980)은 부모의 통제, 외적 처벌, 성취에 대한 압력, 특권 박탈, 감정적 처벌 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무관함을 보고한 연구(도현심과 최미경, 1998)도 있고, 통제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아동이 성장할수록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Anderson & Hughes, 1989)도 있다.

또한 허용이나 방임 및 느슨한 훈육에 대해서도 결과들간에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허용과 느슨한 훈육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Anderson & Hughes, 1989; Kawash, Kerr, & Clewes, 1985)가 있는 반면에, 허용성이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도현심과 최미경, 1998; Young, 1993)도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나 특정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지각이나 자아평가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이렇듯 다양하고 적지 않게 상충되고 있는 이유는 측정도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응답자(참여자)의 지위나 특성의 차이에 있을 수도 있다(박영애, 1995). 예컨대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에 있을 수도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자녀의 성에 따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성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여아보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현심과 최미경, 1998; Margolin, Blyth & Carbone, 1988)가 있는가 하면,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김문혜와 강문희, 1999; Richard, Gitelson, Peterson, & Hurtig, 1991)도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도현심과 박성연, 1998). 특히 전통적으로 부모가 남아와 여아를 구별하여 대하는 양육태도나 행동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 온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심리정서적 환경을 염두에 둘 때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의 성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다. 방금 언급한 연구들과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녀의 성에 따라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고, 부모의 양육행동 전체가 남아의 자아존중감 전체와 여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중 어디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남녀 아동의 성에 따라 살펴보고,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각 변인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양육행동의 경우,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차원에 따라, 자아개념의 경우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차원별로 남녀 아동의 분석을 달리 하고자 한다.

한편 자아성장과 자아존중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로 아동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가효, 1997; 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90). 이 시기는 신체적·인지적 성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된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아개념이 주변의 사회적 기대와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 기대와 기준에 따라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게 행동하는지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

아동기를 지나 사춘기에 들어서면 또래들로부터 받는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에(송선희, 1994; Harter, 1990), 부모의 평가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 역시 아동기라 할 수 있다. 이 때 아동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존중과 수용, 인격적 대우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자아의 발달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정, 수용, 격려,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신감의 발달을 돕는 것이 아동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힘써야 할 주된 과제로 강조되고 있기도 하는데(김광웅과 최경순, 1997; Honig & Wittmer, 1991), 이와 같은 시각 역시 아동기가 자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민감기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을 파악할 때 직접적인 관찰이나 부모, 아동, 형제 등 가족 구성원 전체의 보고 등 다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방법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상의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남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는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Tein, Roosa, & Michaels, 1994)과 개인의 사고와 행동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의에 기초한다는 견해(Schaefer & Keith, 1985), 아동의 지각은 아동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임정하와 정옥분, 1997),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할 때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숙, 1988)을 토대로 아동의 지각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남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군에 따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요인의 발달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바람직한 자아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구체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제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인성발달과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기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표집을 계획하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지역별로 한 학교씩 선정하되, 연구대상자의 수가 지역에 따라 편포되지 않도록 5학년 학생의 수가 250명 내외가 되는 학교를 선정하여 5학년 학생 전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서울 216명, 수원 257명, 대전 285명, 그리고 대구 346명 등 총 1104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는데, 회수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완성 형태인 4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060명의 자

료를 실제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을 보면 고졸이 5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 이상이 33%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과 일반 판매직이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이루고 있었으며, 기술직/관리직이 30.0%, 사무직/보완업무종사자/계장급이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19.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50-200만원이 3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50만원 미만이 27.2%, 200-250만원이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구성된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Schaefer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토대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약간의 표현상의 수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들에 걸친 다양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정의는 세 가지 즉 온정·수용,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으로 이루어진다.

- ① 온정·수용 :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

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자율성 및 독립성의 장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¹⁾

- ② 거부·제재 : 아동에 대한 불안, 비난, 부정적 평가,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침해적 개입 등의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²⁾

- ③ 허용·방임 :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하는 익애, 굴복적인 허용과 무책임, 무관심형의 방임 등과 같은 양육행동이 포함되어 있다.³⁾

응답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그것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비슷하다'(4점), '대체로 비슷하다'(3점), '별로 비슷하지 않다'(2점), 그리고 '아주 다르다'(1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얻을 수록 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양육행동 척도 전체의 경우 .85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는 온정·수용이 .94, 거부·제재가 .87, 그리고 허용·방임이 .65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Harter(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 검사(SPPC: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번안하여 표준화작업을 거쳐 사용한 박영애(199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주요 차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구성은 다섯 가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지각과 하나의 총체적인 자아가치 평가

1) 문항의 예 : 내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신다.

2) 문항의 예 : 나에게 보기도 싫다고 하실 때가 자주 있다.

3) 문항의 예 : 내가 하고 싶다면 거의 뭐든지 다 하게 하신다.

를 위한 전반적인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 ① 학업 능력 : 지적 능력이나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유능성⁴⁾
- ② 사회적 수용 : 아동에게 중요한 인물이나 집단으로부터의 평가와 수용⁵⁾
- ③ 운동 능력 :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에서의 유능성⁶⁾
- ④ 신체 용모 :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⁷⁾
- ⑤ 행동 품행 : 올바른 태도와 행실에 대한 평가⁸⁾
- ⑥ 전반적 자아가치감 : 총체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⁹⁾

이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로, 각 문항마다 주어진 네 개의 응답은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진술로 양분되어 있다. 아동은 이 두 범주의 묘사 가운데 자기 자신과 보다 비슷해 보이는 쪽을 먼저 택한 후에 그 내용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나는 정말 그렇다'와 '나는 약간 그렇다' 중 한 곳에 표시를 하게 된다. 답안의 배열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없이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이 지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긍정성이 높은 답안에서부터 '나는 정말 그렇다'에 4점, '나는 약간 그렇다'에 3점, 부정적인 답안 중 '나는 약간 그렇다'에 2점, '나는 정말 그렇다'에 1점이 주어진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는 자아존중감 척도 전체의 경우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별로는 학업능력이

.83, 사회적 수용도가 .61, 운동능력이 .76, 신체용모가 .79, 행동품행이 .64,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75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00년 2월, 본조사는 2000년 5월 8일로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 4개 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총 1,113부가 배부되어 1,104부가 회수되었고,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1,060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한글 SPSSWIN Program과 SAS Program(6.12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ANOVA, 상관관계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아동의 성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수용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거부

- 4) 문항의 예 : 학급에서 공부할 아주 잘한다.
- 5) 문항의 예 : 친구를 사귀기가 아주 힘들다.
- 6) 문항의 예 : 바깥놀이나 게임을 잘 못한다.
- 7) 문항의 예 : 자기의 키와 몸무게에 만족한다.
- 8) 문항의 예 : 평소에 말썽을 자주 부리는 편이다.
- 9) 문항의 예 : 자기가 지금의 자기인 것을 행복해 한다.

표 1. 남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온정·수용 M(SD)	거부·제재 M(SD)	허용·방임 M(SD)	전 체 M(SD)
전 체	3.24 (.61)	2.13 (.46)	2.09 (.43)	2.69 (.42)
남 아	3.23 (.46)	2.21 (.46)	2.10 (.45)	2.72 (.41)
여 아	3.25 (.50)	2.02 (.43)	2.07 (.41)	2.67 (.44)
	t=-.69	t=6.84***	t=0.97	t=1.60

***p<.001

· 제재는 2.13, 허용·방임은 2.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온정·수용과 허용·방임의 영역에서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부·제재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로 지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성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가운데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사회적 수용도(2.72), 신체·용모(2.66), 행동·품행(2.61), 학업능력(2.59), 운동능력(2.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총점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능력과 신체용모, 행동품행의 하위 영역에서는 남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가 여아에 비해 운동능력이나 신체용모의 하위영역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반면, 행동 품행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남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들간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

표 2.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업능력 M (SD)	사회적 수용 M (SD)	운동능력 M (SD)	신체용모 M (SD)	행동품행 M (SD)	전반적 자아가치감 M (SD)	전 체 M (SD)
전체	2.59(.61)	2.72(.58)	2.57(.66)	2.66(.73)	2.61(.51)	3.02(.62)	2.69(.42)
남아	2.62(.61)	2.71(.54)	2.69(.64)	2.72(.73)	2.53(.50)	3.01(.59)	2.72(.41)
여아	2.57(.61)	2.73(.62)	2.41(.66)	2.59(.74)	2.70(.51)	3.05(.63)	2.67(.44)
	t=1.18	t=-0.32	t=6.36***	t=2.62**	t=-4.93***	t=-0.76	t=1.60

p<.01 *p<.001

표 3. 남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온정·수용		-.22**	.01	.30**	.20**	.15**	.11*	.22**	.28**
2. 거부·제재	-.29**		.32**	-.20**	-.12*	-.02	-.13**	-.24**	-.26**
3. 허용·방임	-.06	.15**		-.17**	.01	.02	-.10*	-.06	-.11*
4. 학업 능력	.28**	-.20**	-.08		.34**	.24**	.34**	.42**	.44**
5. 사회적 수용도	.29**	-.21**	-.02	.35**		.42**	.28**	.24**	.34**
6. 운동 능력	.19**	-.07	-.02	.19**	.42**		.34**	.20**	.32**
7. 신체 용모	.26**	-.24**	-.01	.36**	.42**	.27**		.27**	.61**
8. 행동 품행	.37**	-.30**	-.07	.42**	.36**	.16**	.39**		.45**
9. 전반적 자아가치감	.39**	-.27**	-.06	.45**	.47**	.26**	.63**	.48**	

* p<.05 ** <.01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는 남아, 아래는 여아의 수치임.

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남녀 아동 모두에 있어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전 하위영역에 걸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 모두 전 하위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의 경우에는 남녀 아동 모두 운동능력의 영역을 제외한 전 하위영역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제재가 높을수록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아동의 운동능력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용·방임의 경우에는 남아의 경우에만 자

아존중감의 일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여아들과 달리 남아들은 자신이 지각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능력과 신체용모,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하위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군간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은 무엇이고, 어머니의

표 4. 남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의 정준상관 분석

정준변량합수	Canonical R		정준근		비율		고유치		F		자유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1정준합수	.445	.523	.198	.273	.802	.941	.247	.376	6.174***	7.136***	18
제2정준합수	.200	.136	.040	.019	.136	.047	.042	.019	2.293*	0.828	10
제3정준합수	.137	.067	.019	.005	.062	.011	.019	.005	1.80	0.403	4

*p<.05 ***p<.001

양육행동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군을 예측변수군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군을 종속변수군으로 하여 정준상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에는 제 1 정준변량함수($p < .001$)와 제 2 정준변량함수($p < .05$)가, 여아의 경우에는 제 1 정준변량함수($p < .001$)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개의 정준변량함수에 대해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 : W), 정준적재치(canonical loading : L), 정준적재치의 자승값(L^2), 각 변인의 L^2 값이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전체 L^2 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 \Sigma L^2$ 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남아의 경우 제 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

을 살펴보면, 남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정준적재치 중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수는 온정·수용(.809)으로, 군내 변량의 49.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거부·체재(37.4%), 허용·방임(12.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예측이 잘되는 종속변수는 학업능력(.838)으로, 군내 변량의 34.1%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전반적 자아가치감(.762)은 28.1%, 행동품행(.668)은 21.6%, 사회적 수용도(.418)는 8.5%, 신체용모(.328)는 5.2%, 운동능력(.226)은 2.5%였다.

이는 남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온정·수용이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 가운데서도 특히 학업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으로 전반적 자아가치감, 행동품행, 사회적 수용도, 신체용모, 운동능력의 순으로 설명력이 있다

표 5. 예측변수군과 종속변수군의 정준가중치(W) 및 정준적재치(L)

	제1정준변량함수								제2정준변량함수			
	W		L		L^2		$\% \Sigma L^2$		W		L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예측변수군												
1. 온정·수용	.713	.769	.809	.902	.654	.814	.499	.565	-.164	.067	.454	.392
2. 거부·체재	-.425	-.443	-.700	-.680	.490	.462	.374	.321	-.747	-.418	.175	.151
3. 허용·방임	-.310	-.045	-.407	-.128	.166	.165	.127	.114	.959	.728	.530	.457
양육행동 전체					1.310	1.441	1.000	1.000			1.159	1.000
종속변수군												
1. 학업능력	.572	.103	.838	.595	.702	.355	.341	.129	-.926	-.470	.221	.393
2. 사회적 수용도	.076	.193	.418	.638	.175	.041	.085	.147	.349	.188	.035	.062
3. 운동 능력	-.061	.016	.226	.330	.051	.109	.025	.039	-.202	-.102	.010	.002
4. 신체 용모	-.264	.129	.328	.684	.107	.467	.052	.169	-.273	-.121	.015	.027
5. 행동 품행	.227	.482	.668	.841	.446	.708	.216	.256	.776	.500	.250	.444
6. 전반적 자아가치감	.574	.374	.762	.846	.580	.716	.281	.259	.324	-.179	.032	.057
자아존중감전체					2.061	2.762	1.000	1.000			.563	1.000

는 것을 뜻한다.

첫 번째 도출된 정준변량함수쌍과는 독립적으로 잔여 변량을 최대로 설명하는 정준변량함수인 제 2 정준변량함수를 보면, 예측변수군에서는 허용·방임(.728)의 적재치가, 종속변수군에서는 행동품행(.500)의 적재치가 높았고, 각각의 설명 변량은 45.7%와 44.4%였다. 즉, 남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제재가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며, 그 가운데에서도 행동품행이 가장 잘 예측될 수 있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에도 제 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온정·수용(.902)으로 군내 변량의 56.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거부·제재(32.1%), 허용·방임(15.1%)의 순이었다. 여아의 자아존중감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예측이 잘 되는 종속변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846)으로 군내변량의 25.9%가 설명되었으며, 행동품행(.841)은 25.6%, 신체용모(.684)는

16.9%, 사회적 수용도(.638)는 14.7%, 학업능력(.595)은 12.9%, 운동능력(.330)은 3.9%가 설명되었다.

이것은 여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온정·수용이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으로 행동품행, 신체용모, 사회적 수용도, 학업능력, 운동능력의 순으로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예측변수군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변인군은 정준 종속변인군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종속변인군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은 정준 예측변인군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정준상관 곧 교차상관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남아의 경우 제 1 정준상관에서의 교차상관을 보면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온정·수용(.360)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거부·제재(-.311), 허용·방임(-.181)이었

표 6. 정준 종속변수군과 정준 예측변수군간의 교차상관계수

	제 1 정준변량함수		제 2 정준변량함수
	남	여	남
예측변수군			
1. 온정·수용	.360	.472	.014
2. 거부·제재	-.311	-.355	-.084
3. 허용·방임	-.181	-.067	.146
종속변수군			
1. 학업 능력	.373	.311	-.094
2. 사회적 수용도	.186	.333	.038
3. 운동 능력	.101	.173	-.021
4. 신체 용모	.146	.358	-.024
5. 행동 품행	.297	.440	.100
6. 전반적 자아가치감	.339	.442	.036

으며, 제2 정준상관에서는 허용·방임(.146)의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아존중감의 요인으로는 제1 정준상관에서는 학업능력(.373)이었으며, 그 다음이 전반적 자아가치감(.339), 행동품행(.297)이었으며, 제2 정준상관에서는 행동품행(.100), 학업능력(-.0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변인은 온정·수용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변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어지는 자아존중감의 변인은 학업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수는 온정·수용(.472)이었고, 그 다음이 거부·제재(-.355), 허용·방임(-.067)으로 나타났다.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아존중감 요인은 전반적 자아가치감(.442)과 행동품행(.440)이었다. 이로써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변인은 온정·수용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변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자아존중감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행동품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독립변인군인 예측변인군과 평가변인군인 종속변인군간의 공유변량을 보다 정확히 추정

하기 위해 정준중복지수(canonical redundancy index)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앞의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남아의 경우 예측변수군의 중복지수의 합은 .096으로, 예측변수군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군으로 평가변수군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을 예측하는 데 9.6%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제1 정준함수의 설명력이 8.6%, 제2 정준함수의 설명력이 1.0%였다. 또한 평가변수군의 중복지수의 합은 .072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군을 7.2% 설명하고 있었으며, 제1 정준함수가 6.8%, 제2 정준함수가 0.4%를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여아의 경우에는 예측변수군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군으로 평가변수군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을 예측하는 데 제1 정준함수가 11.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변인군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군을 설명하는 데 제1 정준함수가 12.6%의 설명력

표 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정준중복지수

변인	Canonical 남	R		R ²		중복지수		중복지수비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예측변수군									
1	.445***	.523***	.198	.273	.086	.118	.896	1.000	
2	.200*		.040		.010		.104		
					.096	.118	1.000	1.000	
평가변수군									
1	.445***	.523***	.198	.273	.068	.126	.944	1.000	
2	.200*		.040		.004		.056		
					.072	.126	1.000	1.000	

을 지니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 자녀의 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거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드문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아동의 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군에 따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요인의 발달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이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바람직한 자아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구체적인 부모의 양육행동 지침을 자녀의 성에 따라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 수원, 대전, 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아동 1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남녀 아동 모두 자아존중감의 전 하위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허용·방임은 남아의 경우에만 자아존중감 중 '행동품행', '학업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세 가지 양육행동 요인 중 온정·수용이 남아와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강

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자아존중감의 변인은 남아의 경우에는 '학업능력', 여아의 경우에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사항별로 논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자녀를 수용, 존중,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며 아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장려하는 이와 같은 양육행동이 아동을 거부·제재하거나 아동의 요구를 지나치게 받아들이거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허용·방임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 중 온정·수용이 거부·제재나 허용·방임에 비해 더 높게 지각된 선행연구(박영애, 1995)의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임을 밝힌 박세정 등(200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달리 지각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 영역과 허용·방임 영역에서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거부·제재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로 지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어머니의 거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박영애, 1995; 손낙주와 최보가, 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들이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더 많은 성취기대와 포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Frankel & Rollins, 1983) 남아들이 부모들로부터 더 많은 성취압력과 기대를 받고 어머니의 거부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박영애 등, 2000). 또한 여아보다 남아의 활동수준이 높고 공격적인 행동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체벌과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부모의 거부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손낙주와 최보가, 1996).

자아존중감의 경우 아동 자신에 의해 가장 높게 평가된 영역은 남녀 모두 전반적 자아가치감이었으나, 그 다음은 남아와 여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는 신체용모,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학업능력이 그 뒤를 이은 반면, 여아는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 신체용모, 학업능력, 운동능력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 성에 따른 차이 곧, 남녀 아동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운동능력과 신체용모의 영역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었고, 행동품행의 영역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각종 활동이나 지침에 있어 아동의 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즉, 남아의 경우 아동의 신체용모나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의 장점이나 우월성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한편 학업능력이나 행동품행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그리 높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수용이나 행동품행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영역을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는 한편, 신체용모나 학업능력, 운동능력과 같이 아동이 자신 없어 하기 쉬운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등에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

동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은 남녀 아동 모두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의 전 하위영역에 걸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이 아동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고 한 기존의 연구(도현심과 최미경, 1998; 박영애, 1995)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양육행동 요인 중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온정·수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거부·제재의 경우에는 남녀 아동 모두 운동능력의 영역을 제외한 전 하위영역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며 제재가 심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박영애, 1995; 오순환, 1991)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허용·방임의 경우에는 남아의 경우에만 학업능력, 신체용모,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같은 자아존중감의 일부 영역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느슨한 훈육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Kawash, et al., 1985)나 여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지원 및 참여에 민감한 반면,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통제나 자율 및 허용에 더 민감하다는 주장(Gecas & Schwalbe, 1986)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아에 비해 허용·방임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허용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의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의 보고(도현심과 최미경, 1998; 박영애,

1995; Young, 1993)와 권위주의적 양육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익애적 양육이 학업에 해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Lamborn et al., 1991)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군간의 정준상관을 분석해 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높으며,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장발달, 특히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1 정준상관에서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은 온정·수용이었으며, 그 다음이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나타났고, 가장 잘 예측되는 자아존중감의 요인은 학업능력이었으며, 그 다음이 전반적 자아가치감, 행동품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이 자녀의 학업적·사회적·일반적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오순환, 1991)나,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온정·수용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학업능력이 부모의 양육요인에 의해 높게 예측되는 것으로 밝힌 선행연구(박영애, 1995)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반면, 사회적 수용도에서의 예측력은 높으나 행동적 측면에서의 예측력은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박영애, 1995)의 결과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2 정준상관에서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어머니의 양육요인은 허용·방임으로 나타났고, 가장 잘 평가되는 자아존중감의 요인은 행동품행이고 그 다음이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였다. 즉, 어머니의 온정·수용이 남아의

자아존중감 중 학업능력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과 더불어 비록 작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허용·방임이 남아의 행동품행을 정적으로, 학업능력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방임이 남아의 행동품행에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느슨한 훈육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Kawash, et al., 1985)나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통제나 자율 및 허용에 더 민감하다는 주장(Gecas & Schwalbe, 1986)과 맥을 같이 하나, 허용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도현심과 최미경, 1998; 박영애, 1995; Young, 1993)나 익애적 양육이 자녀의 행실과 비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amborn, et al., 1991)와 반대되는 결과로,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어머니의 허용적·방임적 양육이 남아의 학업적 자아에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는 간섭적·제재적 양육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며(오영미, 1997; 박영애 등, 2000),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으로 지각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통제적·간섭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어머니의 느슨한 양육태도나 행동이 학업능력과 관련해서 여아보다는 남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남아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경우 특별히 학업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감독과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침을 얻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근래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정이 한 두 명의 자녀만을 두면서 무조건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정준중복지수를 아동의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함에 있어서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남아보다 여아의 설명력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를 통해 연령을 비롯한 관련 변인에 따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할 만한 사항을 언급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향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행동 모델을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구체화시키고 그것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부모교육 모형을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남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주제이며, 이외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기타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에 따른 양상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부모양육 행동유형을 제시하는 일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광웅, 최경순 (1997). 가정교육의 지침. 새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241-253.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문혜, 강문희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20(4), 195-211.
 김영희 (1998). 유아의 자아개념과 적응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215-234.
 김형효 (1997). 한국인의 사회적 불행과 가정의 존재론적 가치. 가족의 정신문화적 의미와 가족주의 문제, 2-2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종희 (1997). 인간관계론. 서울:양서원.
 도현심, 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박세정, 박인전, 최영희 (2000).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및 아동의 생활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1), 139-156.
 박영애 (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1-182.
 오영미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순환 (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가효 (1997). 유·아동기의 가정교육. 새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273-293.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연 (1993). 부모역할훈련에서의 자아개념 및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하, 정옥분 (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63-175.
- 조규성 (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보가, 손낙주 (1998).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과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4), 121-135.
- Anderson, M., & Hughes, H.M. (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365.
- Dubois, D.L., Eitel, S.K., & Felner, R.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Duvall, E.A.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5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Company.
- Eaton, M.(1997). Positive discipline: fostering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3(6), 43-46.
- Fletcher, A.C., Darling, N.E., Steinberg, H., & Dornbusch, S.M. (1995). The company they keep: Relation of adolescents' adjustment and behavior to their friends' perception of authoritative parenting in the social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300-310.
- Frankel, M., & Rollins, H. (1983). Does mother know best? Mothers and fathers interacting with preschool sons and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694-702.
- Glasgow, K.L., Dornbusch, S.M., Troyer, L., Steinberg, L.R., Ritter, P.L.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68(3), 507-529.
- Gecas, V., Schwalbe, M.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Halpin, G., Halpin, G., & Whiddon, T. (1980).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mong American Indians and white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1, 189-195.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esteem. In E.M. Hetherington, in P.H.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275-385). New York:Wiley.
- Kawash, G.F., Kerr, E.N., & Clewes, J.L. (1985). Self-esteem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 235-242.

- Lamborn, S.D., Mounts, N.S., Steinberg, L., & Dornbusch, S.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Margolin, L., Blyth, D.A., & Carbone, D. (1988). The family as a looking glass: Interpreting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from a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 211-224.
- Mussen, P.H., Conger, J.J., Kagan, J., & Huston, A.E. (199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7th ed.)*. New York:Harper & Row.
- Richard, M.H., Gitelson, I.B., Peterson, A.C., & Hurtig, A.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Basic Books.
- Santrock, J.W. (1994). *Adolescence(5th ed.)*. Madison:Brown & Benchmark.
- Tein, J.U., Roosa, M.W., & Michaels, M. (1994).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o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41-355.
- Vernard, M.L. (1993). Depression, learned helplessness, and percep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Comparisons between homeless and hous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Young, M.H. (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Self-esteem - Emphasizing on the analysis based upon children's sex -

Young Yae Park

Dept. of Child Welfare, Hannam Univ.

Young Hee Choi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uwon Univ.

In Jeon Park

Dept. of Child Studies, Yeungnam Univ.

Hyang Eun Kim

Dept. of Family Welfare, Kosi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ir self-esteem. The subjects were 1060 children in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cities of Seoul, Suwon, Daejeon, and Daegu. Maternal warmth and acceptance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all six self-esteem factors for boys and girls, while permission and neglect showed significant but lower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t of them 'moral behavior' and 'scholastic competence' for boys only. Warmth and acceptance factor of the three maternal childrearing factors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children's self-esteem for boys and girls. 'Scholastic competence' was the best predicted self-esteem score for boys, while 'global self-worth' was the best predicted self-esteem score for girls.

Keywords: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self-esteem